

검은 목두루미의 여행.

서울 봉현초등학교

5학년 김재희

나는 베이징을 지나가는 검은 목두루미야. 요즘 베이징을 지나가는 건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힘들어. 오늘도 벌레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계속 이 상태로 벌레를 잡지 못 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늘을 날 때면 눈앞이 먼지에 가려져 나뭇가지에 부딪히는 일도 많아. 자꾸 입에 뭐가 씹히고 기침이 나고 눈도 뻑뻑해. 날아가다 아래를 보면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건물에 들어가 있어.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피할 방법이 없잖아. 내 친구 흑일이는 앞이 너무 안 보인 나머지 얼마 전 나무에 세게 부딪혔다는거야.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시름시름 앓더니 어제 결국 죽었어. 흑일이 전에는 흑돌이가 며칠을 벌레를 못 잡아 굶어 죽었어. 나도 내 친구들처럼 될 것 같아서 무서워. 베이징에 오래 있을수록 친구들과 가족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 이 상태로 한국까지 가는 건 무리일 것 같아. 배도 아프고 날개도 무겁고. 이제는 한국에 가도 달라지는 게 없을텐데, 끝까지 갈 수 있을지조차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쯤에서 포기해야하나.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어. 그 때 내 동생 흑돌이가 내가 좋아하는 생선을 잡아다 주었어.

“형, 이거 먹고 힘내. 우리까지 포기 할 순 없잖아. 우리 꼭 살아서 한국에 가자! 거긴 좀 나올거야.”

흑돌이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니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의지가 생겼어.

‘꼭 한국에 가고 말거야! 흑돌이랑 행복하게 살기로 했어!’

그 후로 우리는 계속 한국을 향해 날아갔어. 한국까지 가는 길은 아주 험난한 길로 이루어져 있어. 바닷바람이 불어와 소금기 때문에 날개는 무거워 날기 힘들고 바람은 또 얼마나 거센지 너무나 험난한 여정이었어. 며칠을 날고 또 날아 한국에 도착했어. 그런데 한국은 베이징과 완전 딴

판이지 뭐야? 한국에서는 깨끗하게 잘 보이고 기침도 안났어. 숨쉬기가 편하니까 멀리 날아가기도 쉬웠어. 신기해서 여기저기 보고 있을 때 옆에 지나가는 비둘기가 있어서 물어봤어.

“여기 공기 되게 좋다~어떻게 이렇게 공기가 깨끗하지?”

“여기도 예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숨 쉬기도 힘들었었어. 눈 앞도 뿌옇고. 그러다 한 번은 안개 낀 것처럼 온 세상이 희뿌연 날이 있었어. 그걸 보고 놀란 인간들이 미세먼지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

“어떻게?”

“나도 잘 몰라. 그런데 자동차가 지나갈 때 매연도 안 나오고 쓰레기도 많이 줄었어. 그리고 일회용품도 많이 안 쓰더라고. 조금씩 노력하다 보니까 공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공기가 맑았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너는 한국에 살아서 좋겠다.”

비둘기랑 헤어지고 조금 더 돌아다니다가 돌아와 동생에게 말했어.

“여기 되게 좋다. 가족들과 함께 오면 좋았을텐데....”

“우리라도 즐겁게 지내야 슬프지 않지. 형, 힘내! 우리 계속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동안이라도 행복하게 지내자.”

베이징에서는 먹이 하나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여기는 먹이가 넘쳐나서 좋아. 물도 깨끗하고 주변을 돌아보면 초록색이 가득해 기분이 좋아져. 이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다음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야겠어.